

오르무스, 건강과 행복을 약속할 신물질 상태

| 로저 테일러 | 김현정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살아있는 유기체 속에 초전도현상이 있으며 그것은 물질의 오르무스 상태와 연관이 있고, 오르무스가 손상된 DNA를 고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이 글은 최근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류의 미래에 매우 중요할 수 있는 발견물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학적 위험은 높다. 이 주장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한 부류의 물질들—어쩌면 화학원소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오르무스(ORMUS)라는 신조어는 이 물질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물질들의 특이한 화학적, 물리적 성질에 관한 많은 논쟁들 가운데 일부를 아래에 요약한다.

무엇보다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식물과 동물에게 미치는 유익한 영향 때문이다. 오르무스 원소들이 모든 생물과 물, 흙 속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그 원소들을 보충제로 썼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무척 경이롭기 때문이다(뒤쪽 그림들 참조).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를 준다.

이 발견의 이야기는 1970년 후반 미국 애리조나의 부유한 목화 농장주인 데이비드 허드슨(David Hudson) 때문에 시작된다. 허드슨은 그 지역 화산토의 기이한 특징과 기반암에 귀금속이 매장되었다는 소리 때문에 그 성분의 정량분석을 완벽하게 해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당시 의뢰를 받은 분석가는 그 가운데 일부 성분을 분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어리둥절했다. 그것은 금속성을 띠지도 않았고, 화학적 반응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분광기를 이용한 조사에서 어떤 표시도 내지 않았다. 그때 한 분광기 기사가 그 부분을 ‘더 오래 연소’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분광적인 특성이 나타났다. 또 놀랍게도 그것은 특정 귀금속들을 연상시켰다. 확실히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허드슨은 화학자 몇 명을 고용해 그 문제를 풀기로 했다. 그 결과는 허드슨이 받은 특허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¹⁾ 허드슨은 그것에 관한 강연을 수차례 했다. 내가 그것에 관해 처음 알게

된 것도 바로 그 강의를 녹화한 9시간짜리 비디오에서였다.

하지만 이것을 주제로 한 글이 과학 잡지에 실린 적은 없었다. 그것은 허드슨의 주장이 너무 도전적이기 때문이었고, 나도 그것이 학문적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에 관한 글을 뒤로 미루었다. 이렇게 학술 연구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자유로운 과학자 집단과 비전문가들은 수년 동안 이 주제에 관해 연구해왔다. 이들은 기금의 보조나 공인된 실험실도 없이, 그리고 허드슨과의 어떤 접촉도 없이, 허드슨의 주장들 가운데 일부를 재현해내는 데 성공했다. 허드슨의 연구는 물론, 이들의 작업은 또 다른 미국인 연구가 배리 카터(Barry Carter)에 의해 많은 기사문으로 알려졌다. 그 방대한 정보는 그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²⁾ 한편 이 원소들에 관한 토론이 인터넷상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과학 연구 집단(science working group)은 이 원소들의 화학, 물리적 측면과 그것들을 추출해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출된 결론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이 발견으로 우리가 새롭고 매우 복잡한 분야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이고, 그 발견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매우 더디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사실, 물리학과 화학, 생물학 분야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허드슨과 독자적 연구 집단의 작업을 통해 우리가 얻은 기본적 사실은 로듐, 이리듐, 금, 백금, 팔라듐, 구리, 그 외 몇몇 금속들을 포함한 귀금속들(일부는 그리 희귀하지 않지만)이 금속성도 없고 인지할 수 있는 분광적인 신호도 없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허드슨과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독자적 연구 집단이 연구한 자료에서 그 증거를 볼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증거로 돈 낸스(Don Nance)가 진행하고 있는 연

구를 들 수 있다.³⁾ 낸스는 사해(Dead Sea)의 소금으로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실험하기 전과 후의 소금을 민간 스펙트럼 분석실에 보냈다. 그 결과, 금과 은을 포함한 몇몇 성분들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것은 10만 배나 증가했다.

허드슨의 주장은 다음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는데, 이 주장들은 논란의 소지가 더 많은 것들이다. 첫 번째로 허드슨은 전자들이 원소의 오르무스 형태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재배열된다고 주장한다. 또 금속원자들을 단단히 결합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해 그것들이 쉽게 ‘단원자’로 된다고 한다. 그래서 허드슨은 그것들을 전위궤도단원자원소(ORMEs, Orbitally Re-arranged Monatomic Elements)라고 불렀다. 더 최근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그 원소들 중 일부는 이원자(diatomic)일지도 모르고, 그 느슨한 결합이 다른 원소들-특히 알칼리금속들-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그 원소들의 속명은 오르무스(Ormus)로 변화했다. 또 이 원소들은 ‘엠 상태(M-state)’라고도 불린다.

두 번째로 허드슨은 더욱 도전적으로, 전자의 재배열이 쿠퍼 쌍(Cooper pairs, 초전도 물질 내에 두 전자쌍의 유사구속 상태로, 초전도체 내에서 전류를 운반한다-역주)의 형성과 관련 있어서 정상 기온에서 초전도적일 수 있다고 (또는 어떤 처리를 거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동의하며, 배리 카터는 웹사이트에 자석에서 뛰어오르는 회색 가루를 짚은 동영상으로 올렸다. 그러나 ‘뛰어오르는 알갱이’로는 초전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허드슨의 주장이 간접적 근거로 사용된 몇몇 주류의 출판물이 있는데, 이것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⁴⁾ 그 출판물들은 특정 무거운 금속 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큰 회전(high spin)’ 상태를 인정한다. 그

허드슨이 수분을 함유한 물질인 로뎀 오르무스를 거름종이 위에 놓고 말리는 과정에서 그것이 강력한 불빛에 사라지는 것을 관찰했을 때 어떤 소리도 충격파도 없었다. 그들은 오르무스 원자들이 양자터널에 의해 벽을 통과할 수 있고, 동시에 소량의 물을 운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상태에서 원자핵은 길어져 더 높은 회전가(value of spin)를 취한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종류의 물질을 대량으로 획득하지는 못했다.

허드슨은 매우 많은 물질들을 분석하고 실험한 대부분의 토양에서, 특히 화산토에서, 오르무스 원소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 이후 다른 연구가들은 그들이 실험한 다양한 천연수들 대부분에서 오르무스 원소들을 발견했고, 특히 사해에 고농도로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⁵⁾ 심지어 어떤 연구가는 공기 중에서도 발견했다. (이즈음, 무거운 원소가 단원자 형태로 희귀 가스처럼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허드슨은 화학자들에게 식물의 세포조직 검사를 의뢰해, 화산토에서 자란 식물-알로에 베라- 속에 오르무스가 가장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 송아지와 돼지의 뇌 조직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그 건조물(오르무스)의 5%를 획득했다. 속에 든 오르무스 원소들을 금속형태로 전환시켜야 하므로 그 분석은 그리 쉽지 않다. 분석적 목적을 위해, 허드슨이 사용했던 ‘오랜 연소’를 통한 독특한 스펙트럼 분석방법을 이용할 때 그 일은 일어난다. 하지만 대량으로 금속을 준비하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고, 실행되거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독자적 연구자들 중 분광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종류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 불행히도 허드슨 역시 재정적, 법적 이유로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같다.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관찰된 기이한 현상들 가운데 일부라도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허드슨이 수분을 함유한 물질인 로뮴 오르무스를 거름종이 위에 놓고 말리는 과정에서 그것이 강렬한 불빛에 사라지는 것을 관찰했을 때 어떤 소리도 충격파도 없었다. 더 기이하게도 오르무스 이리듬을 열로 가열하고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는 그것이 급격히 무거워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는 오르무스 이리듬이 무게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모두 회복하는 것을 발견했다. 핀란드의 한 이론 물리학자는 이 결과를 자신의 고차원 이론에 포함시켰다.⁶⁾ 소리 없는 섬광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독자적 연구자들이 있다. 또 무게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⁷⁾ 그들 중 일부는 또 다른 기이한 현상들을 목격했다고 한다. 응축된 오르무스를 담고 있는 물방울들이 용기 ‘외벽’에 맺혔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장의 영향 아래서 말이다. 이것을 보고 그들은 오르무스 원자들이 양자 터널에 의해 벽을 통과할 수 있고, 동시에 소량의 물을 운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양자터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백 찾지 방법으로 많이 수집했다. 그것들은 언젠가 학회에서 이용 가능할 것이다) 또 어떤 연구가는 한 오르무스 물질이 수용액 속에서 고정된 전하를 얻는 기이한 현상을 관찰했다고 말한다. 그 전하는 소리를 내며 발화하는 불꽃으로 방출될 수 있고, 그 후에 다시 충전된 뒤 무한정으로 방출될 수 있다.⁸⁾

한편 이 물질들의 생물작용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 생물학의 새로운 장이 이미 열렸다고, 생명에 대한 획기적인 이해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생명의 전체론적 특성은 오직 양자결맞음(quantum coherence)을 기반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즉 (고전적 열역학에 따르면) 겉으로 보기에는 생물학적 분자들의 무작위 활동이 실제로는 레이저의 작동을 통제하는 양자 원리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매완호(Mae-Wan Ho) 박사⁹⁾는 생물학을 급진적으로 수정하는 이 견해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양자 생물학의 새로운 전망이 최근 몇몇 흥미로운 연구 결과 때문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DNA의 적은 부분이 단백질의 유전 암호를 지정하는 일을 하는 반면, DNA의 대부분(소위 정크DNA라고 불리는 부분)은 화학적 성질과 상관없이 인체의 양자 '장(field)'에 관여한다.¹⁰⁾ 이것은, 살아있는 유기체 속에 초전도 현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수많은 출판물과 더불어^{11), 12)}, DNA와 오르무스 사이의 깊은 관련성에 관한 허드슨의 추측에 근거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오르무스가 손상된 DNA를 고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허드슨은 산업 분야에서 이 물질들이 커다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예견했다. 특히 이 희귀한 원소들을 분석하고 나서, 그것들이 금속 형태보다 오히려 오르무스 상태로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연금술에 관심이 많았던 허드슨의 삼촌은, 허드슨이 이 주제를 더 파고들면 일부 연금술사들의 말처럼 치유력과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백금'과의 연관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¹³⁾ 그래서 허드슨은 오르무스 샘플을 암과 진드기열 때문에 거의 죽어가고 있는 개에게 먹여보았다. 그 개는 건강을 회복했고, 그 뒤 오르무스를 먹겠다고 나서는 자원자들이 생겼다. 그 결과는 좋았다고 한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허드슨은 오르무스 샘플을 많은 의사들에게 보내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시도해보라고 권했다. 그는 어떤 강연회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놀라운 회복에 관한 일부 사례를 그래프로 보여주었다. 또 로둠 오르무스 샘플을 제약회사인 머

크사(Merck & Co.)와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를 포함해 많은 연구소에 보냈고, 그곳에서 암세포 조직에 실험해본 결과, 독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후 수많은 생산자들이 생겼는데, 그들은 사해를 비롯해 깊은 우물물과 광산에서 캐낸 소금과 알로에 베라와 같은 약용식물 등 다양한 원천에서 오르무스 응축물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다.¹⁴⁾ 현재 오르무스를 먹어본 사람들은 수천 명에 이를 것이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중병을 앓은 적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태도가 영적으로 변화한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원기와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무스 덕분에 암을 비롯해 다른 중병에서 회복되었다는 보고는 매우 적다. 그뿐 아니라 동물에게 미치는 오르무스의 영향을 볼 수 있는 사례도 한두 개에 불과한데 그중 하나가 사고로 꼬리가 잘린 고양이 사례다. 놀랍게도, 고양이에게 오르무스를 먹이고 꼬리에도 바르자 꼬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한다(그림6 참조).¹⁵⁾ 또 네덜란드에서 영계 25만 마리에게 오르무스가 섞인 사료를 먹이는 실험이 대규모로 진행된 적이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계에게 오르무스를 먹인 결과

2주째 사망률 감소	90%
전체 사망률 감소	10%
발 감염 감소	85%
피부 문제 감소	66%
체중 증가	7%
가슴살 비율 증가	10%
사료 요구 증가	8%

* <http://www.sea-crop.com/research.html>

하지만 인간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모두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다. 임상실험도 없었고 그것을 분석한 결과표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확한 분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르무스와 같은 물질에 대한 의료청구가 제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이 필요한지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의학 치유법의 효과를 관찰하는 데 널리 이용되는 기술들을 이용하여 우리는 의료기준을 피하면서 오르무스의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그 기술들 가운데 하나가 혈액의 암시야현미경법(dark field microscopy, 스피로헤타, 세균의 운동을 관찰하는 데 쓰는 현미경-역주)이다. 오르무스를 먹고 난 뒤 몇 시간이 지나면, (침술과 마사지 같은 다른 효과적인 요법과 마찬가지로) 적혈구는 더욱 둥그렇게 되어 잘 분리되어 있고, 혈청 속의 잔해가 줄어든다.¹⁶⁾ 또 뇌전도(EEG) 연구보고서에는 좌뇌와 우뇌의 균형을 증가시킨다는 사례들이 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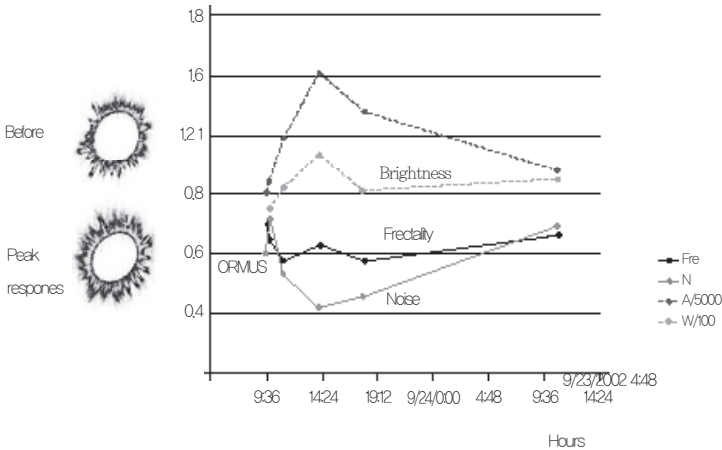


그림 1. GDV(생체전위영상장치)를 이용해 찍은 오르무스 일회 양에 대한 나의 반응

또 다른 기술로 생체전위영상장치(bioelectrography)가 있다. 이것은 키를리언 사진술(Kirlian photography)을 아우르는 좀더 일반적인 장치이다. 이 장치는 콘스탄틴 코로트코브(Konstantin Korotkov) 박사에 의해 정량 과학(Quantitative Science)으로 정교히 다듬어졌다.^{18),19)} 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판매용 오르무스 물질을 1년 가량 복용한 적이 있었는데, 몸의 에너지와 ‘행복감’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이 실험을 위해 나는 코로트코브 박사가 고안한 GDV(gas discharge visualization)라는 영상장치를 이용했다. 나는 오르무스 복용을 2주 동안 중단한 뒤, GDV로 내 몸을 촬영했다. 그런 다음, 오르무스를 일반적인 양보다 많이(하루 섭취량의 6배) 복용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몸을 계속 촬영했다. 그림1은 이 실험을 시간대별로 분석해놓은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이미지의 면적은 약 4시간 만에 1.5배로 커진 다음 12시간에 걸쳐 서서히 줄어들었다. GDV를 이용한 코로트코브 박사의 방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미지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면적은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준다. 마지막으로 건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머리 색깔이 원래대로 복원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것은 구리 오르무스 상태를 특별히 보여주는 것 같다(그림7).

이 물질을 직접 만들고 싶은 독자들은 배리 카터의 웹사이트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그것을 보면 될 것이다.²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다 소금용액의 pH 농도를 10.6 내지 10.78에 맞추는 것이다. 그 결과로 생기는 마그네슘과 수산화칼슘 같은 침전물은 오르무스 원소들과 함께 침전된다. 그리고 남아서 소금을 다량으로 씻어 내버린다.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자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 영향

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매우 경이롭기까지 하다. 여러 웹사이트에서 그 자료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²¹⁾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물질은 단순하면서도 비싸지 않은, 해수를 이용해 만든 미정제 응축물이다. 사실, 오르무스가 발견되기 전부터 사람들은 바다, 특히 해에서 얻은 물질을 농업에 이용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닷물을 그대로 경작지에 끌어들이으로써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메이나드 머레이 박사(Dr. Maynard Murray)²²⁾는 동물의 건강에 관한 연구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동물들은 바닷물을 끌어들이 땅에서 수확한 곡식을 먹었다고 한다. 그 한 예로, 그는 조상 쥐들을 봤을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90퍼센트인 쥐 일족(一族)을 연구했다. 그들 중 일부에게 바닷물을 끌어들이 땅에서 생산된 곡식을 먹였더니 암 발병률이 55퍼센트밖에 되지 않았고, 2세대에서는 2퍼센트로 줄었다. 물론 바닷물을 끌어들이 땅은 염분을 지나치게 많이 함유하게 될 것이고, 곡물의 수확량도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오르무스를 응축시키는 기술을 쓰면 소금에 비교해 오르무스의 양을 80배나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머레이 박사에 따르면, 악성 종양의 발병이 드문 지역은 대개 ‘물이 바다로 잘 흘러들어가지 않아서’ 산에서 씻겨 내려온 생물에 필요한 필수요소들이 흘러가버리지 않고 재활용되는 지역이라고 한다.

오르무스 응축물은 아주 조금만 있으면 된다. 작물에 따라 4,000㎡ 당 4~20리터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바닷물을 이용했을 때보다 훨씬 좋다. 사실, 그 결과를 찍어놓은 사진이 없다면, 아무도 그것을 믿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년 동안 오르무스로 처리를 한 호두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평범한 호두나무보다 두 배나 크게 자랐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린 호두는 표준 무게보다 여섯 배나 더

나가고 크기도 오렌지만큼 크다. 또 오르무스로 처리한 자두나무에서도 첫 해에 표준치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자두가 열렸고, 이듬해에는 다섯 배나 되는 열매가 열렸다. 농장주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할 정도로 키가 큰 옥수수 사진도 있다. 그 키가 약 360cm 정도는 되어 보인다. 메론만큼 큰 오렌지도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다(그림2~5 참조). 또 오르무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계속 그 사례를 보고하면서 오르무스로 처리한 농작물이 더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빨리 숙성하고 비료도 적게 들고 병충해와 추위, 염도의 증가에도 강하다고 말한다. 나는 토마토를 키우면서 그것을 경험했다. 토마토를 녀 줄 심었는데, 그 가운데 두 줄만 오르무스를 처치하고 나머지 두 줄은 물만 주었다. 나중에 수확해보니, 물만 준 토마토는 14kg이었고, 오르무스를 처치한 토마토는 26kg이었다. 게다가 엄격히 통제하지는 않았지만 당근은 500g이 넘는 것도 있었다.

농작물에 오르무스를 처치하고 난 이듬해에, 그리고 매년 수확량이 늘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수확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쩌면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땅 속의 균 뿌리(고등 식물의 뿌리와 균류가 긴밀하게 결합하여 양자 간에 공생 관계가 맺어져 있는 뿌리-역주)²³⁾를 오르무스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덕분인 것 같다. 우리는 이 균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이 균류들이 화학 비료와 제초제를 지나치게 많이 써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놀라운 결과물들이 오르무스 덕분이라는 증거는 없다. 혹자는 극히 평범한 무기물 때문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확하고 과학적인 연구가 더 많이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발견물을 사용하기에 앞서 그 연구 작업이 시행되

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세계의 인구 증가율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고, 경작지는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거의 모든 땅이 이미 경작되고 있다. 바닷물로 만든 값싼 물질을 이용해 농작물을 두 배로 생산할 수 있다면, 기아로 허덕이는 곳에 풍요로움이 찾아들 것이다. 그리고 오르무스를 직접 섭취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건강은 많이 좋아질 것이다. 게다가 바닷물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그 물질을 매점매석할 위험도 없고, 제3세계 국가의 농부들이 사지 못할 정도로 그 물질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도 없다.

어쩌다가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이 원소들이 만성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원소들이 바닷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고, 땅에 있던 그것들이 대량으로 바다에 씻겨 내려간 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육지의 사막화가 심각해지는 현상을 일부분 설명해줄 수 있다. 그리고 식물의 성장이 둔화되면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증가되고 지구는 온난화될 것이다. 그래서 대륙의 거대한 면적을 오르무스로 처리하면, 지구 온난화를 상쇄시키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비행기로 오르무스를 뿌리는, 특히 숲 위에 뿌리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생물연료 농작물을 더 좁은 면적에서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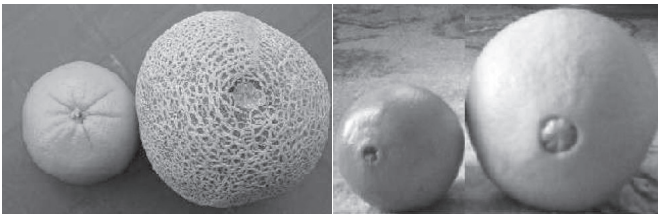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처참한 참사를 피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옮기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닷물로 만든 물질로 땅을 살리는 일이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르무스의 놀라운 특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림 2. 오른쪽 나무는 오르무스를 수년간 처치한 나무이다. 오르무스로 처치하지 않은 왼쪽 나무에 비해 여섯 배나 무거운 과일이 열렸다.



그림 3. 오르무스를 처치한 나무에서 열린 호두들



슈퍼마켓 오렌지와 슈퍼마켓 메론 슈퍼마켓 오렌지와 오르무스 오렌지

그림 4.



그림 5. 옥수수 농장주가 자신이 키운 옥수수 옆에 서 있다. 멕시코에서는 옥수수의 평균 수확량이 1에이커 당 3천 리터인데, 이 농장주는 9천 리터를 수확한다.



그림 6. 사진 속의 고양이는 태어난 지 한 달 되었을 때 꼬리가 잘렸다. 오르무스를 음식물로 섭취하고 잘린 꼬리에도 발라주자, 두 달 반이 지났을 때 꼬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마지막 사진은 2년이 지난 후의 모습인데, 꼬리가 완벽하게 자라 있다.



1999년 10월 31일

2002년 3월 10일

그림 7. 구리 오르무스로 2년 반 동안 처치를 받은 뒤 수염의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온 사진이다.

참조

1. www.subtleenergies.com/ormus/patents/patents.htm
2. <http://www.subtleenergies.com/ormus/tw/articles.htm>
3. <http://www.subtleenergies.com/ormus/tw/dsassays.htm>
4. <http://www.subtleenergies.com/ormus/research/research.htm>
5. <http://www.subtleenergies.com/ormus/tw/livwater.htm>
6. <http://www.helsinki.fi/~matpitka/index.html>
7. 이 의견들은 오르무스의 과학적 연구 집단들이 연 포럼에서 보고되었다.
8. <http://www.aethericenergy.org/index.htm>
9. The Rainbow and the Worm by Dr Mae-Wan Ho. World Scientific, Singapore, 2nd Ed. 1998. Also see articles by Dr Ho on <http://www.i-sis.org.uk/>
10. The DNA - Wave Biocomputer by Peter Gariaev et al: <http://www.emergentmind.org/gariaev06.htm>
11. D. A. 페인(Paine)과 W. L. 펜신거(Pensinger)의 <초전도성 DNA를 설명하는 역학적 이론>, 양자화학의 국제 잡지(International Journal of Quantum Chemistry), 15:3, pp. 333-341, 1979.
12. <http://www.subtleenergies.com/ormus/tw/dna.htm>
13. Lost Secrets of the Sacred Ark by Sir Lawrence Gardner, 2004, Harper Collins, ISBN 000714296X, and <http://www.graal.co.uk/index.html>
14. <http://www.life-enthusiast.com/index/Products/NanoOrmus>
15. <http://www.subtleenergies.com/ormus/tw/tutstail.htm>,
16. 덧붙여 말하자면, 이것은 적혈구 침강 속도를 시험하는 일반 병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 <http://www.subtleenergies.com/ormus/tw/coherence.htm>
18. Human Energy Field by Dr K.G. Korotkov, 2002. Backbone Publ. Co., Fair Lawn, NJ, USA. ISBN 5-8334-0330-8
19. Caduceus Issue 67, Winter 2005, pp30-32.
20. Access through Ref, 2.
21. <http://www.subtleenergies.com/ormus/tw/ormusplants.htm>, , <http://www.seacrop.com> , <http://www.c-gro.com>.
22. Sea Energy Agriculture by Dr Maynard Murray 1976 Valentine Books, Winston-Salem, North Carolina, USA. ISBN 0-911311-70-X1.
23. 균뿌리에 관한 정보는 톰 웨이크퍼드(Tom Wakeford)의 <공생, 그 아름다운 공존(Liaisons of Life)>에서 찾아볼 수 있다.(끝) 

- 이 글은 'Ormus: a possible new state of Matter with Promise for Agriculture, Health and Environment' 에서 발췌했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로저 테일러**(Roger Taylor, PhD) | 면역학 박사. 브리스톨 대학에 영국 의학연구위원회 Medical Research Council 산하에 면역 연구 그룹을 만들어 면역 내성에 대한 연구를 이끌었다. 지난 18년간 미세 에너지의 과학적 기 에 대해 독립적으로 연구해오고 있다. 카두시어스 저널(Caduceus Journal)의 과학 편집자와 기자이며 2007년 봄 통권 제7호에 그가 쓴 오르무스 기사가 실려 있다.

역자 | **김현정** | 지금여기 번역위원